

제2354호 2024. 6. 23. 연중 제12주일

제1독서 : 욥기 38,1-8-11

제2독서 :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5,14-17

복 음 : 마르코 복음서 4,35-4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그림_ 가브리엘라 수녀님



✦ 화 답 송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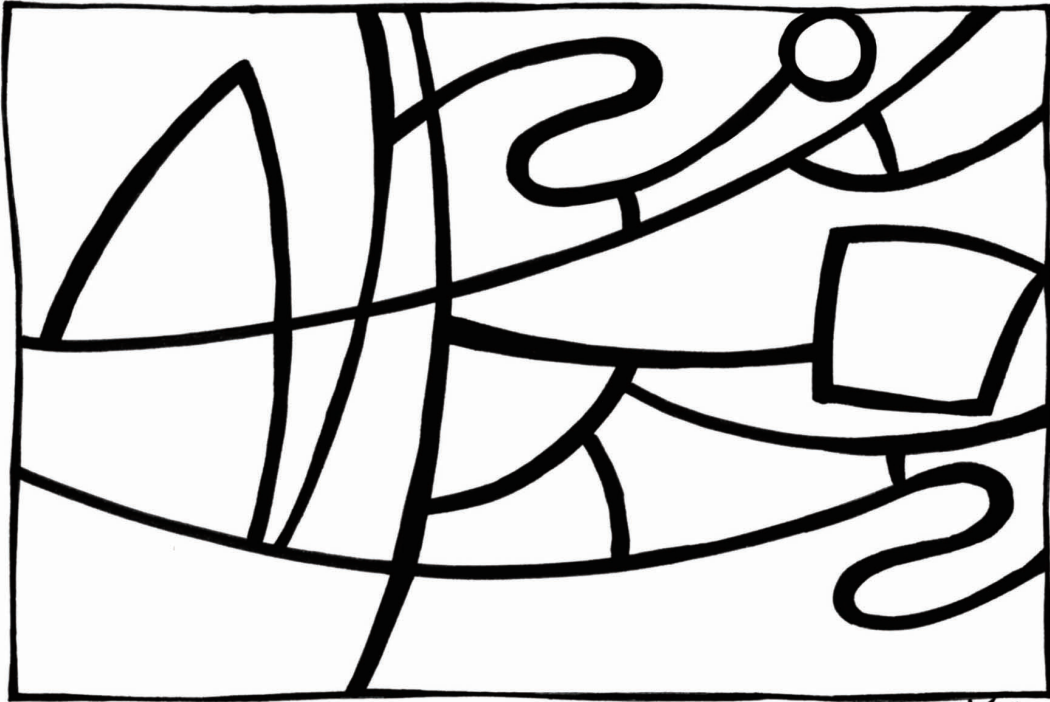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말씀그림



2021. 10. 23

● 말씀그림에 숨어있는 한글을 찾아보고 예쁘게 색칠하세요.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분께서는 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있는 이들이 이제는 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입니다. 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이 되었습니다.

◇ 제2독서 <2코린 5,14-17>

● 오늘의 독서를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찬미예수님, 작은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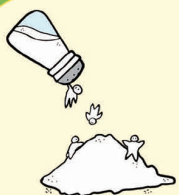
14지구 동작동 성당
문필정 바실리오 신부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조금씩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히 예수님을 깨웠고,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바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다시 고요하고 평온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거센 바람을 만난 것처럼, 작은마음 친구들도 두려운 생각 때문에 한 걸음도 뚝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도 멈추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두려워도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소금통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호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 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 ②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 ③ 평화가 너희와 함께
- ④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수제 목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수상자 채다나 그라시아 (잠실7동 성당 4학년)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번 달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이에요. '예수 성심'이란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지요. 그라시아 어린이의 작품에서 예수님의 큰 사랑 위에 어린이가 앉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큰 사랑과 따스함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보내도록 해요.